

버냉키 의장 재지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오바마 美 대통령은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버냉키 현 연준의장을 4년 임기의 차기 의장으로 재지명

대부분의 학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버냉키 의장의 재지명을 반기고 있으며 상원의 인준도 받을 것으로 보이나 2006년 첫 임기의 시작 시점에 비해서는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편

버냉키 의장은 향후 출구전략의 적시 시행, 통화정책 체계의 수정, 연준의 독립성 유지, 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의회 설득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

1. 버냉키 의장 재지명의 배경

□ 오바마 美 대통령은 8. 25일 휴가지인 매사추세츠州 Martha's Vineyard 에서 내년 1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버냉키 현 연준의장을 4년 임기의 차기 의장에 재지명한다고 발표

□ 금년초 민주당 정권의 출범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버냉키 의장의 재지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으나 임기 만료를 5개월이나 남겨 놓은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지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서는 1987년 이후 공화당 인사가 독점해 온 연준 의장직을 이번에는 민주당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인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大 총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 버냉키 의장의 과감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정책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실물 경기도 미약하나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continuity and stabilit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
 - 결정적인 정책 오류가 없는 버냉키 의장을 경질하고 차기 의장에 민주당 인사, 더욱이 백악관 참모인 서머스를 임명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와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버냉키 의장을 재지명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
- * 서머스는 하버드大 총장 시절 성차별 발언(여성이 과학 및 수학분야에서 학문적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타고난 차이 때문) 등으로 의회 인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편 버냉키는 다른 당 소속 대통령에 의해 재지명된 네 번째 연준의장으로 기록됨
- 아이젠하워 대통령(공화당)이 마틴 전 의장(민주당)을, 레이건 대통령(공화당)이 볼커 전 의장(민주당)을,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이 그린스판 전 의장(공화당)을 재지명한 바 있음

주요 연준의장 재지명 사례

의장	재임 기간	지명한 대통령
William McChesney Martin, Jr. (민주당)	1951. 4. 2 ~ 1970. 1. 31 (1955, 1959, 1963, 1967 재지명)	최초 지명 : Truman(민주당) 재지명(2회) : Eisenhower(공화당) 재지명 : Kennedy(민주당) 재지명 : Johnson(민주당)
Paul A. Volcker (민주당)	1979. 8. 6 ~ 1987. 8. 11 (1983 재지명)	최초 지명 : Carter(민주당) 재지명 : Reagan(공화당)
Alan Greenspan (공화당)	1987. 8. 11 ~ 2006. 1. 31 (1991, 1996, 2000, 2004 재지명)	최초 지명 : Reagan(공화당) 재지명 : H. W. Bush(공화당) 재지명(2회) : Clinton(민주당) 재지명 : George W. Bush(공화당)
Ben S. Bernanke (공화당)	2006. 2. 1 ~ 현재 (2009. 8. 25. 재지명)	최초 지명 : George W. Bush(공화당) 재지명 : Obama(민주당)

2. 재지명에 대한 반응

- 그 동안 버냉키 의장의 재지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계, 금융계 전문가들은 그의 재지명을 지지*해 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알려진 후에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

*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0%가 버냉키 의장이 재지명될 것으로 전망(Reuters, 7. 10)

** <참고> 버냉키 의장의 재지명 관련 논란 참조

- 재지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이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을 방치한 책임이 있어 금융경제의 안정을 사전적으로 담보해야 할 연준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
- 특히 스티븐 로치는 지명 결정이 난 후 FT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의 선택을 강하게 비판*

* 버냉키는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반대하였고,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s glut)론을 통해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국에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시장주의에 대한 맹신이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주장 (The case against Bernanke, Financial Times, 8. 25)

- 버냉키 의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2006년 첫 임기시의 인준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음

* 인준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상원의 Christopher Dodd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재지명에 암묵적 지지를 표시

- 지난 6. 25일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증언에서 버냉키 의장은 메릴린치를 인수하도록 Bank of America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 당했으며 이 문제는 인준 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
- 일부 의원들은 AIG 등 부실금융기관의 구제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결정이 적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규제감독기관으로서 연준이 충실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06년 버냉키 의장의 인준시 반대는 1표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10~25표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

* *The very model of a modern central banker*(2009. 8. 27)

3. 버냉키 의장의 향후 과제

- 금융시장에서는 의장 2기를 맞는 버냉키가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① 출구전략의 적시 시행

-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행은 미국 경제를 이중침체(double-dip)에 빠뜨릴 수 있는 반면, 이를 미룰 경우 또 다른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 전환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 연준의 출구전략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행정부 및 의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는 어려운 정치적 문제이기도 함

② 통화정책 체계의 수정(monetary regime change) 필요성

- 버냉키는 연준 이사 시절부터 통화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다는 신념하*에 자산가격 변동을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데 반대해 왔음

* 그린스펀이 명시적인 통화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버냉키는 연준도 인플레이션 타게팅 같은 명시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버블 형성을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한 연준과 버냉키 자신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통화정책 체계에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부각

③ 연준의 독립성 유지

- Ron Paul 하원 의원(공화당)이 통화정책에 대한 감사권을 의회 산하 회계 감사실(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연준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준의 독립성 유지는 버냉키 의장의 중요한 과제

*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시도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 동 법안에 대해 하원 의원의 약 2/3가 공동 sponsor로 나서고 있으나 단독 법안으로 성립되기 보다는 다른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이사의 임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임 이사진과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

— 공석중인 2명의 이사, 2010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콘 부의장의 후임자와 금년 1월 임기를 시작한 Tarullo 이사를 포함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연준이사중 4명을 지명*하는 셈

* 일각에서 Warsh 이사의 중도 사임 가능성도 제기(The Wall Street Journal, 7. 9)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5명의 이사를 임명

연준이사 현황

인 사	임 기
Ben S. Bernanke(의장)	· 이사 임기 : 2002. 8. 5 ~ 2005. 6. 21 2006. 2. 1 ~ 2020. 1. 31 · 의장 임기 : 2006. 2. 1 ~ 2010. 1. 31
Donald L. Kohn(부의장)	· 이사 임기 : 2002. 8. 5 ~ 2016. 1. 31 · 부의장 임기 : 2006. 6. 23 ~ 2010. 6. 23
Kevin M. Warsh	· 임기 : 2006. 2. 24 ~ 2018. 1. 31
Elizabeth A. Duke	· 임기 : 2008. 8. 5 ~ 2012. 1. 31
Daniel K. Tarullo	· 임기 : 2009. 1. 28 ~ 2022. 1. 31

④ 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의회 설득

- 행정부는 연준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규제개혁안의 의회통과를 위해 노력중
-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의회의 제도개혁 의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냉키 의장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크루그만 프린스턴大 교수는 금융규제 관련 개혁 법안 내용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 자금이 워싱턴 정가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

< 참고 >

버냉키 의장의 재지명 관련 논란

구분	인사	발언 내용
찬성	Nouriel Roubini 뉴욕大 교수	일부 정책 오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이 새로운 대공황(Great Depression 2.0)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Bernanke 의장은 연임될 자격을 갖춘(The New York Times, 7. 26)
	Financial Times 사설	Bernanke 의장의 탁월한 판단력은 미국 경제를 구해냈으며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용주의적 위기 관리자로서의 면모를 증명해 보여 Obama 대통령은 그를 재지명 해야 함(8. 9)
	Paul Krugman 프린스턴大 교수	Bernanke 의장은 은행시스템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연준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케 하는 등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한 점에 비추어 재지명 되어야 함(Bloomberg, 8. 10)
	Steven Pearlstein 칼럼니스트	주택버블을 부정하고 연준이 버블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나,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이었던 점에서 Bernanke 의장이 적임(The Washington Post, 8. 14)
반대	Anna Jacobson Schwartz NBER 연구원	투명성 결여 등 Bernanke 의장의 심각한 실수들에 비추어 그는 재임될 자격이 없으며, Obama 대통령은 뛰어난 학계 인사나 훌륭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연준 내부 인사를 선임해야 함(The New York Times, 7. 26)
	Richard Bernstein 전 Merrill Lynch 수석 투자전략가	Bernanke 의장의 정책은 금융시장의 현상유지를 시도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기 연준의장은 실물과 금융부문의 자산버블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을 이끌 인물이어야 함(Business Insider, 7. 30)
	Irwin Steltzer Hudson 연구소 선임연구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Obama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경제관이 유사하고 출구전략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측근으로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임(Sunday Times, 8. 16)